

## 송기인(신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sup>1)</sup>) 3차 구술

1. 구술자: 송기인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1월 8일
5. 구술장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자택
6. 구술분량: 05분 24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서거 당시와 영결식 당일 상황

구술자 :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시민의 제보로 알았거든. 전화를 걸어가지고.

면담자 : 삼랑진의 시민이

구술자 : 응, ‘소식을 봤습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을 했는데 유서가 있다. 그러가 이제 그때는 그 대학병원<sup>2)</sup> 얘기가 안 나오고 조금 있다 다시 전화가 왔다. 내 대학병원에 갔지. 가서 이제 시신을 보자 그러니깐 절차가 있다고 좀 기다리라고 해서 한 시간쯤 기다려가 시신을 봤지. 그래서 내가 이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 조금 하고. 내가 세례를 줬잖아.<sup>3)</sup> 그래 인제 그리고 돌아왔고 나는 그 병원에도 별로 지키지 않았어, 왔다갔다만 하고. 그리고 인제 시신이 봉하로 옮겨지고 장례문제가 이제 협의가 됐는데. 그래서 (장소를) 서울로 하게 됐는데. 진영에서 하기로 했을 때는 내가 부산주교한테 얘기했지, 전화로. ‘주교님 와서 예절을 집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세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진영에서 하면 내가 할 생각이었고. 천주교 예식은 장의위원회에서 ‘송 신부가 하면 되지’ 다 이렇게 됐는데 서울로 가게 되니까 달라졌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추기경에게 내가 직접 전화가 안 돼서 추기경님한테 내가 그 ‘장례 사도예절<sup>4)</sup>을 추기경님이 해

---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해 2년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요청을 고사하고 교회로 복귀했다. 송기인 신부가 재직하는 동안 과거사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봉암 사건 등 57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나 재심을 권고했다.

2) 양산의 부산대병원을 말함.

3) 구술자는 1986년 당감성당에서 노 대통령에게 세례명 ‘유스토’로 영세를 줬다.

4) 사도예절은 장례미사 후에 시신을 장지(葬地)로 모셔 가기에 앞서 죽은 이의 죄의 사함을 비는 기도예절이다.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송 신부가 하라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내가 하기로 하자. 인제 급하게 성가대를 모집하기 힘들더라고. 갑자기 하려니까. 수녀장상연합회에다 연락을 해가 수녀들을 할 수 있는 한 모아서 성가를 하기로 하고, 성가곡은 함 신부<sup>5)</sup>가 우겨가지고 자꾸 승천 노래<sup>6)</sup> 그걸 꼭 하라 그래 가지고 승천노래를 넣고 그래서 해서 했는데 내가 처음에 목소리가 안 나와가, 잘 안 들리다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천주교 예절은 그렇게 했고. 그래가 거기서 예절이 끝나고 추기경도 그때 이렇게 스치면서 “애 많이 썼어” 그랬고. 추기경도 참석을 했다 그때. 그랬었고 그 다음에 행렬을 따라서 시청 앞으로, 서울역까지 걸어서 나도. 그때 햇볕이 뜨거웠다.

서울역에서 버스를 탔지. 버스를 타고 화장장<sup>7)</sup>에 갔는데. 화장장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했다. 또 이제 거기 종단별로 얘기를 하라 그랬는가. 그래가 이제, 그때 내가 내 입으로 처음으로 “국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마음을 모을 수 있어 좋다고, 오히려 국민에게 고맙다’ 그랬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관이 화장, 불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때 이제 티비(TV)로 비춰주었거든. 어떤 사람이 내 팔을 잡고는 그냥 펍 쓰러지면서 “안 돼” 그러는 거야. 어떤 아주머니가. 그게 그, 국민의 마음이었어. 그때. 공통되게 그런 아픔. 장례식이 거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묘지, 거기에선 내가 그 장의위원에게 마산주교, ‘마산주교 관할이다. 마산주교님에게 연락을 하라’ 그랬지. 나도 참석은 했는데 마산주교님이 와서 직접 예절을 했어.

그러니깐 그, 노무현이란 사람은 촌놈인데. 어떻게 자기가 재주를 부려가 뭐 일을 성취하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노력해서 정말 올바르게 하면 힘을 기울여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걸 쟁취하려고하지 어떤 술수나 예컨대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른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으면 좋고, 그지? 못 얻으면 또 더 노력하고 이런 성격. 그런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는 자기 개인의, 개인 신앙에는 마이너스가 많겠지. 그렇지만 사회, 우리 인류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꼭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

장례미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사도예절만으로 장례식을 대신할 수 있다.

5) 함세웅 신부를 말함.

6) 예수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함을 기리는 성가를 일컫는다. 승천 신앙에서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나라에 드는 ‘승리’의 표식으로 이해된다.

7) 수원 연화장을 말함.

또 특별히 학생들이 앞으로 노 대통령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

## ■ 구술자 주요이력

1938. 부산 출생

1972. 사제서품

1974. 부산인권선교협의회 회장

1983. 당감성당 주임신부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회장

1987. 미국 보스턴 대학 연수

1989.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1993. 부산교회사 연구소 소장

199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1995.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2005. - 200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노 대통령에게 ‘유스토’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주기도 했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이때를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82쪽)”고 기록하고 있다. ‘부산·경남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참여정부 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